제10장 덕량(德量)을 넓혀라

도 입

사람들은 보통 어떤 목표를 향해 일을 하다가 약간의 성취가 나타나면 곧장 그것에 만족하고 멈춰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크게 이루지 못하고, 그 성취한 점만 가지고 오히려 치우치고 잘 난 체하고 남을 이기려고 든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올바른 행위의 반복에서 올바른 품성 상태가 생긴다는 뜻이다. 이처럼 우리가 훌륭한 인격이나 덕을 갖는 것도 한 때 이른 것, 한 순간의 선행만으로는 부족하다. 꾸준히 노력하여 쌓아 나가야 한다.

그런 뜻에서 이 장에서는 덕량(德量) 곧 도량(度量)을 넓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데, 덕으로 나아가는 도량과 무리를 용납하는 도량과 공평한 도량을 넓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 문

[율곡의 풀이]

앞의 아홉 장에서 이미 자신을 수행(修行 : 수신)하는 차례를 자세히 말하였다. 여기서는 다시 덕량을 넓히고[恢德量], 덕을 돕고[輔德], 마음을 돈독(敦篤)하게 하는 문제를 세 장에서 거듭 그 남은 뜻을 논하겠다. 덕량(德量)이 넓지 못하면 조금 터득한 것에 만족하고, 한 모퉁이에 치우쳐서 높고 넓고 두터운 경지에 나아가지 못한다. 때문에 덕량을 넓히는 것이 몸을 단속하는 문제 다음에 온다.

[예기]

공자가 말하였다. "잘한 것은 남이 하였다 하고, 잘못한 것은 내가 하였다 하면 백성이 다투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신의 능한 것으로 남을 병들게 하지 않고, 남의 능하지 못한 것으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서경]

그 선(善)을 가졌다고 여기면 그 선을 상실하고, 그 능한 것을 자랑하면 그 공을 상실한다.

[주역]

포용력이 있고 넓고 빛나고 크면, 만물이 모두 형통한다.

[서경]

완악한 이에게 성내고 미워하지 말며, 한 평범한 사람에게 완벽을 구하지 말라.

[서경]

반드시 참아야 일을 이루고, 용납해야 덕이 커진다.

[서경]

치우치지 않고 기울지 않게 하여 왕의 의(義)를 좇고, 사사로이 좋아하지 말고 왕의 법도를 좇으며, 사사로이 싫어하지 말고 왕의 길을 좇으라. 치우침도 없고 패거리 지음도 없으면 왕도(王道)가 탕탕(蕩蕩 : 넓고 큼)해질 것이며, 패거리 지음도 없고 치우침도 없으면 왕도가 평평(平平 : 널찍하고 판판함)해질 것이며, 어긋남도 없고 바르지 않은 것도 없으면 왕도가 바르고 곧을 것이다.

[율곡의 풀이]

도량의 넓지 못함은 기질(氣質)이 병든 데서 나오는 것이다. 덕과 도량을 넓히는 데는 다른 공부가 따로 없다. 다만 기질을 바로잡는 한 가지 일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따로 한 장(章)을 만든 것은, 지도자의 덕은 특히 그 도량을 크게 함에 있기 때문에 따로 내세웠다. 사람 중에는 천승(千乘 :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의 나라를 얻고서도 참으로 서운하게 여기면서 스스로 겸손 하는 자가 있으며, 말단 관직 하나 얻고서도 거만하게 높은 척하는 자가 있으니, 이것은 도량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어서이다.

도량이 작은 자는 그 병통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 치우치고 왜곡된 것이요, 둘째 스스로 잘난 체하는 것이요, 셋째 이기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치우치고 왜곡된 자는 막혀 있고 두루 통하지 못하여, 마음을 공평하게 해서 이치를 살피지 못한다. 스스로 잘난 체하는 자는 조금 얻은 것에도 만족하여 뜻을 겸손하게 하여 덕에 나아가지 못한다.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잘못을 꾸미기를 편안하게 여겨서 자기를 비우고 선(善)을 따르지 못한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단 하나의 사사로움일 뿐이다.

아, 하늘과 사람은 원래 하나로 분별이 없는데, 하늘과 땅은 사사로움이 없고 사람에겐 사사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늘과 땅과 더불어 그 큼을 함께하지 못한다. 성인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덕이 하늘과 땅에 부합되는 것이며, 군자는 사사로움을 버리기 때문에 행실이 성인에 부합되는 것이니, 공부하는 이는 마땅히 그 사사로움을 극복하고 도량을 넓혀서 군자와 성인에 미치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사사로움을 다스리는 방법은 학문하는 것뿐이니, 학문이 진보하면 도량도 커지니 타고난 바탕의 좋고 나쁨은 논할 바가 아니다. 힘쓰고 또 힘쓰기를 그치지 않아, 마음이 환하게 트여서 털끝만 한 사사로운 뜻도 그 사이에 관계하는 일이 없게 된다면, 순(舜)과 우(禹)가 천하를 소유하고도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문왕(文王)이 도(道)를 보고도 아직 보지 못한 것같이 한 것도 이것에 지나지 않는다.

해설

덕량을 넓힌다는 것은 도량 또는 아량을 넓힌다는 뜻이다. 덕량(德量)을 국어사전에 보면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씨나 생각"이고 도량(度量)은 "사물을 너그럽게 용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이라고 하고, 아량은 "너그럽고 속이 깊은 마음씨"를 말하는데, 본문에 인용한 경전의 내용을 읽어보면 대체로 그런 뜻이다.

그런데 율곡 선생은 사실 도량이나 덕량을 넓히는 일은 앞 장에서 소개한 기질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한다. 도량이나 덕량을 넓히는 일이 결국 잘못된 성격이나 성품을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니 당연히 기질을 바로잡는 일이다. 그런데 왜 새로 장을 만들어 이것을 반복해서 주장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사실이 『성학집요』가 선조임금에게 올리는 글이었기 때문이다. 나라를 경영하는 왕이기에 더욱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민주사회이지만 그래도 지도자이거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도 이와 같이 도량을 넓혀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생각해 볼 문제

1. 윗글에서, 도량(度量)이 좁으면 자기도 병들고 남도 병들게 하며, 도량이 넓으면 자기도 형통하고 남도 형통하게 한다고 하고 있다. 도량이 크면 이와 같이 유익한데도 사람마다 다 도량이 큰 것은 아니라서 잦은 불화와 다툼이 생긴다. 도량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율곡의 풀이를 읽고 말해 보세요.

2. 도량이 작은 자의 병통은 무엇일까요? 율곡의 풀이를 읽고 세 가지로 말해 보세요.

   *도량이 작은 자의 병통 :

3. 타인에 대한 관대함은 그냥 지금부터 관대하자고 해서 관대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타인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 :

4. 북송 때 정자(程子)는 "밝음을 지나치게 쓰면 지나치게 살피는 잘못이 있게 되고, 너무 살피면 일은 다한다 해도 포용하거나 너그러운 도량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밝게 살피는 것을 끝까지 하지 않고 어둠을 쓰는 것이니, 그런 후에야 사물을 용납하고 무리를 화합시킬 수 있어서 무리가 친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니, 이것이 어둠을 쓰는 것이 바로 밝게 살핌이 되는 이유이다. 만일 스스로 그 밝은 것을 자임하여 살피지 않는 것이 없다면 너그럽게 품어 주는 덕이 없어, 사람들이 눈치 보며 망설이고 불안해 할 것이니, 이것은 무리를 다스리는 도를 잃는 것으

로, 이야말로 밝게 살피지 못함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밝음을 쓰는 것과 어둠을 쓰는 것이 무언인지 추측해 보세요.

*밝음을 쓰는 것 :

*어둠을 쓰는 것 :

5. 여러분은 스스로 도량이 넓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율곡 선생은 "도량의 넓지 못함은 기질(氣質)이 병든 데서 나오는 것이다. 덕과 도량을 넓히는 데는 다른 공부가 따로 없다. 다만 기질을 바로잡는 한 가지 일뿐이다."라고 했다. 만약 도량이 넓지 못하다고 생각했다면, 선생의 말에 따라 기질이 병든 것인데,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 여러분 주위나 우리 역사에서 한 때 기질이 괴팍하고 못된 인간이 훗날 훌륭한 인격자로 변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야 말로 기질을 바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조선 중기 김굉필 선생이다. 선생은 어릴 때 성질이 사납기로 유명했는데, 훗날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 되었다. 주위나 우리 역사에 이 같은 인물을 찾아보자. 또 무엇을 통해 기질을 바꾸어 훌륭한 인품을 갖게 되었을까?

*훌륭한 인격자로 변한 사람 :

*그렇게 변한 방법 :

한문 익히기

유기선 상궐선 긍기능 상궐공
有其善하면 喪厥善하고, 矜其能하면 喪厥功이라(『예기』).

한자 풀이와 해설

有 : 가지다, 소유하다/其 : 그/善 : 착하다, 선/喪 : 잃다, 죽다/厥 : 그, 그것/矜 : 자랑하다, 불쌍히 여기다/能 : 능하다, 잘하다, 능력/功 : 공로, 공

*병렬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전체 주어는 지도자 또는 일반사람으로 생략되었다.

*동사는 有, 喪, 矜이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벌공긍능(伐功矜能) : 잘난 척 하고 자기 자랑을 함

해석

그 선(善)을 가졌다고 여기면 그 선을 상실하고, 그 능한 것을 자랑하면 그 공을 상실한다.

무 분 질 우 완 무 구 비 우 일 부
無忿疾于頑하고 無求備于一夫하라(『서경』).

한자 풀이와 해설

無 : ~말라, 없다/忿 : 성내다/疾 : 미워하다, 질병/于 : '~에게, ~에서'를 뜻하는 어조사/頑 : 완고하다, 완악하다/求 : 구하다/備 : 갖추다/一 : 하나/夫 : 사나이, 지아비

*전체 문장은 병렬문이다.

*주어는 일반사람이다.

*無 : ~하지 말라는 금지하는 말로 쓰였다.

*頑 : 완고하다 또는 완악하다는 뜻이나 여기에서는 그런 사람으로 쓰였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일부(一夫) : 평범한 한 사내, 한 사람의 필부

*구비(求備) : 완벽한 것을 요구함

*책비(責備) : 구비(求備)와 같은 말

해석

완악한 이에게 성내고 미워하지 말며, 한 평범한 사람에게 완벽을 구하지 말라.